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통학버스 안전 점검

전주시, 상반기 관계기관 합동 점검 나서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9일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은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상반기 안전 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유한 전주지역 32개 지역아동센터 중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17개 지역아동센터

의 통학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전주덕진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구조·보호 표지·보험 가입 등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탑승 의무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시는 현장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5월까지 조치를 완료토록 했다.

김현욱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

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집수리 학교' 1회차 기본 과정 25명 수료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공구 사용법·건축 목공 기초·생활 전기·생활 도배 주제 4회 진행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 총 25명의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의 올해 일반 집수리 과정 1회차 기본 과정 교육은 지난 20~28일(2주에 걸쳐 4회 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 과정은 △공구 사용법 △건축 목공 기초 △생활 전기 △생활 도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생들은 "1일차(공구 사용법)에는 전동드릴, 트리머, 작조기(전기톱)에 대한 이해와 실습으로 이어졌다. 첫날의 4일간의 일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서 가볍게 참가할 수 있었다"며 "2일차(건축목공 기초)에는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과 수직을 잡는 방법을 배웠다. 싱크대 안의 경첩이 고장 나거나 수평이 맞지 않을 때 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일반 집수리 과정 1회차 기본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은 생활 도배 이론 교육 모습)

체하거나 경첩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혔다. 싱크대 경첩을 직접 달아보니 뿌듯했다. 나사를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빼놓았던 것을 맞추는 것이 신기했다"고 했다.

이들은 "3일차(생활 전기) 전기에 대한 성질이나 사용법을 통해 안전 예방법을 배웠다. 전선 접속 방법 및 전기 스위치(콘센트) 교체에 대한 실습을 했다. 전선을 벗겨서 연결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스위치·콘센트 연결 실습은 전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LED 전등을 직접 달아 보며 집안의 조명등을 교체해 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4일차(생활 도배) 도배지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 도배 기준선을 맞추는 법, 풀을 버리고 바르는 방법 등을 익혔다. 집안의 작은 도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자신이 들었다"고도 했다.

끝으로 교육생들은 "실습 위주여서 실생활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신 감사님들에게도 감사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다음 과정은 5월 중에 예정이 돼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수강을 신청하면 되며, 교육 관련 사항은 전화(063-281-0161)로 문의하면 된다.

오은주 주거복지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자기 집은 자기 스스로 고쳐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주시설공단, 행안부 장관 표창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 공로... 지난해 정규직 85명 신규 채용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지방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사회에서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지방공공기관을 표창해 우수기관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공단은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2023년 한 해 정규직 총 85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정원 438명(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비 19.4%에 해당하는 비율로, 전체 지방공공기업 평균 10.6%

의 2배에 육박한다. 특히 상반기 공채는 채용인원이 총 6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공단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부분의 인원을 지역 인재로 채용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인증권(KMR)으로부터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도 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확실한 인력으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며 "특히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지역자활센터, '아침 결식 개선 시범사업' 참여

전주용소중·전주성심여중과 '특별 한 끼 사업' 업무협약

전주지역자활센터는 4월 1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아침 결식 개선 시범사업'의 수행업체로 참여해 전주용소중학교와 전주성심여자중학교 2개소에 '아침 간편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지역자활센터는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7일과 29일 각각 용소중학교, 전주성심여자중학교와 '아침 결식 개선사업, 특별 한 끼'를 상호 협력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전주지역자활센터는 전주용소중학교와 전주성심여자중학교에 1인 1식 3000원 상당의 아침 간편식을 공급하게 되며, 아침 간편식을 희망하는 350여 명에게 우선 제공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하며, 전북먹거

리통합지원센터는 도내 15개 시범학교를 모니터링하고 생산·공급하는 주체와 자료를 공유하며 '아침 결식 개선 시범사업'의 안정적 실행을 돕는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전주용소중학교 관계자는 "학생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먹거리 기본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침 결식 개선 시범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중학생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내 15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김옥기기자



전주예수병원 이성희 간호과장이 제37회 전북도 병원간호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병원간호사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예수병원 이성희 간호과장, 병원간호사회 회장상 수상

"후진양성·간호교육과 지역사회 간호업무 최선 다할 것"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홍식)은 제 37회 전북도 병원간호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성희 간호과장이 병원간호사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성희 간호과장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선진 간호 역량을 높이는 간호교육을 시행

해 왔다. 정기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훈련에 참여한 간호사들에게 팀 내 소통을 강화하고 팀원들 사이의 이해와 상호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홍식 병원장은 "병원에서 다양한 도전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수병원은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으로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있다"며 "교육 간호과장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 없는 의료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발휘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이성희 간호과장은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 병원간호사회장을 비롯해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후진양성 및 간호교육과 지역사회 간호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기기자

